박희승의
현대인을 위한 禪의 지혜 ⑫ 禪의 시간관, 무주(無住)



▶한줄 요약
윤회는 시간이 변해 과거에서 미래로 흘러간다는 시간관에서 여유한다. 공간적으로는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건너가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 생사 윤회관이다.

머물지 않는 마음, 수행이자 깨달음

우리에게 윤회는 너무나 익숙하고 공감되는 생사관이다. 윤회 이야기는 사랑과 함께 영화나 드라마, 음악에서도 자주 접하는 주제이다. 특히 한국 사람들에게 윤회는 종교를 막론하고 수용하고 있는 생사관으로 보인다. 유교의 제사나 불교의 49재는 거의 같은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지금은 천주교에서도 49재를 지낸다.

아시아인들이 생사 윤회를 익숙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시간관 때문이다. 시간이 과거, 현재, 미래가 있다고 보고 과거에서 현재를 거쳐 미래로 흘러간다고 본다. 그래서 사람이 태어나 늙고 죽으면 그 영혼이 다음 세상에 태어날 것이라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이 죽으면 절에서는 재를 지내고 유가 전통에서는 제사를 지내어 그 혼을 위로하고 다음 세상에 잘 태어나기를 빈다. 그렇게 하여 가까운 사람의 영원한 이별의 슬픔을 달랜다.

시간의 가치

이처럼 윤회는 시간이 변하여 과거에서 미래로 흘러간다는 시간관에서 연유한다. 공간적으로는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건너가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 생사 윤회관이다.

윤회의 입장에서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로 흘러가며, 시간과 공간이 융합된 세계관으로는 전생(前生), 금생(今生), 내생(來生)의 견해가 있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삼세(三世)라 하는데 세밀하게 나누면 매우 다양한 견해가 있지만, 대체로 불교에서는 전세, 현생, 내세로 나눈다.

이렇게 변하고 흘러가는 시간은 인간에 가장 소중하다.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시간이 아닐까?

왜 시간이 소중한가? 시간은 모든 존재, 모든 사람에게 가치가 있다. 만물이 변하고 사람은 태어나면 반드시 늙고 죽는다. 태어나면 죽으니 태어난 뒤 죽음은 필연이고 시간 문제다. 까닭에 태어나면 죽음은 피할 수 없는 숙명인데 다만 죽음의 시기는 다 다르다. 건강한 사람은 오래 사는 편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일찍 죽는다. 또한 세월호나 이태원 거리 압사와 같은 사고와 재앙, 그리고 6.25전쟁이나 1, 2차 세계대전과 같은 전쟁과 같은 이유로 죽는 경우가 있으니 사람은 태어나서 알 수 없는 죽음의 순간까지 시간이 가장 소중하다.

한편 시간은 돈이나 금은보화 등 그 어떤 물질적인 것보다 소중하다. 아무리 재산이 많고 지위가 높은 사람이라도 그 재산과 권력으로 죽음을 연장하는 시간을 어찌 할 수가 없다. 때문에 시간은 만인에게 평등하다. 부자나 가난한 이나 지위가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에게 시간은 평등하게 주어진다.

부처님의 깨달음 세계와 윤회 문제

부처님께서도 수많은 경전에서 삼세와 윤회의 괴로움에 대하여 말씀하셨다. 또한 부처님이 전세에 인욕행을 닦은 보살이었다는 〈전생담(자타카)〉을 비롯한 여러 경전에서 당신 자신의 전생 수행 이야기를 자세하게 하셨다. 이런 근거로 볼 때 부처님은 전생과 현생에 대한 윤회를 말씀을 하신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삼세 윤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동시에 윤회에서 해탈하는 열반의 깨달음도 말씀하셨다. 부처란 이름이 인도말로 '붓다(Buddha)'라 하는데 우리말로는 '깨달은 자'라는 뜻이다. 부처란 깨달음을 통해서 생사 윤회에서 해탈한 사람이란 뜻이다.

그러니 깨달은 이의 가르침인 불교는 생사 윤회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을 통한 해탈을 가르치는 것이다. 부처님 말씀을 모은 경전에서 부처님은 당신이 깨달은 진리[法]를 중도(中道), 팔정도, 연기(緣起), 삼법인, 무아(無我), 무상(無常) 등 다양하게 표현하셨다.

중도란 '나와 일체 만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중도로 존재한다'는 것이다. 중도로 존재하는 일체 만물은 연기다. 연기란 일체 만물이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서로 서로 의지해서

과거·미래는 허망한 분별심
오직 오늘, 지금 순간일 뿐
본래 없다는 선에서 시간관
부처님 무상과도 바로 일치

존재한다는 것이다. 일체 만물이 중도 연기로 존재하니 고정불변하는 나라는 실체란 없다고 하여 무아(無我)라 한다. 중도 연기, 무아로 존재하는 일체 만물은 늘 변하니 이를 무상(無常)이라고도 한다. 부처님은 이 중도 연기를 바로 보아 '나'라 할 것이 본래 없다는 무아, 무상을 깨치고 생사 윤회의 괴로움에서 해탈한 것이다.

〈금강경〉의 정견, 무아의 지혜

부처님은 조계종이 소의경전으로 받드는 〈금강경〉에서 수보리 장로가 '깨달음으로 가려는 이는 어떻게 마음을 다스려야 하느냐?'는 물음에 '나라는 사상(四相)을 비우고 마음을 써야 한다'고 하신다. 사상은 분별망상을 일으키는 네 가지 생각으로 나라는 아상(我相), 내가 사람이라는 인상(人相), 내가 중생이라는 중생상(衆生相), 나의 영혼이 있다는 수자상(壽者相)을 말한다. 즉 나라고 할 것이 본래 없는데 '내가 있다'는 아상이나 '내가 사람'이라는 인상, '내가 중생'이라는 중생상, '내 영혼이 있다'는 수자상이 티끌만큼이라도 있다면 그는 깨달음으로 갈 수가 없다는 것이다.



화두 참선법인 간화선을 창안하신 대혜선사 진영, 중국 아육왕사 조사당.

더 나아가 부처님은 '과거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없다[과거심불가득 현재심불가득 미래심불가득]'고 설한다. 부처님이 깨치고 알려준 무아(無我)의 법을 깨친 사람은 '나'라고 할 것이 없으니,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없는 것이다. 과거, 현재, 미래는 분별하는 마음이고 영원히 돌이킬 수 없고 갈 수도 없는 관념일 뿐 실재하는 것이 아니다. 깨달은 이는 있는 그대로 보는 지혜의 눈이 열린다.

부처님이 이처럼 무아 법을 말씀하시고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없다 했으니, 전생과 내생의 윤회는 어떻게 되는가? 남방 승가의 전통에서는 내가 있다고 보고 내가 전생에서 내생으로 생사 윤회하면서 무아의 깨달음으로 가는 수행을 말한다.

禪에서 시간관과 정견

북방 승가의 전통인 선종에서는 시간과 윤회에 대하여 어떤 입장일까?

간화선이라는 화두 참선법을 창안하신 대혜(大慧, 1089~1163) 선사는 〈서장〉(누추밀 중훈에게 답함)에서 이렇게 말한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음으로 망령되게 과거법을 취하지 말고, 또한 미래 일에 탐내어 집착하지 말며, 현재에도 머무는 곳을 두지 말고, 삼세(三世)가 다 비었음을 통달하라.(〈화엄경〉)'고 하셨습니다.

과거 일의 혹 선하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생각하면 도에 장애가 될 것입니다. 미래의 일을 계교하지 말아야 합니다. 계교하면 광란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의 일이 앞에 오거든 혹 거슬리고 혹 좋더라도 또한 집착하지 말아야 합니다. 집착하면 마음을 어지럽게 할 것입니다.

다만 일체시에 인연을 따라 맞게 대응하면 자연스럽게 이 도리와 하나가 될 것입니다."

대혜선사가 어느 재가자에게 정견을 세우고 참선하는 법을 일러준 편지이다. 이 글에서 선사는 부처님의 〈금강경〉 말씀과 같이 지나간 과거와 미래에도 집착하지 말고, 또한 현재에도 마음을 두지 말라고 한다. 오직 과거, 현재, 미래 또는 전생, 금생, 내생이라는 삼세가 실체가 없고 연기, 무아라는 것을 통달하라 한다. 이렇게 정견을 세우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그 어떤 것도 마음을 어지럽히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선에서 보는 시간관이다. 과거니 미래니 하는 것은 본래 없는 것으로 허망한 분별심일 뿐이다. 과거는 영원히 돌아 갈수 없고, 미래는 영원히 오지 않는다. 오직 오늘, 지금 이 순간뿐이다. 지금 이 순간도 또한 잡거나 머물지 못한다. 이것을 이름하여 부처님은 일체가 무상(無常)하다고 하였다.

그러니 과거니 현재니 미래라 할 것이 본래 없다는 선에서 보는 시간관이야말로 부처님의 무상이라는 시간관과 일치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처님이 깨달은 중도 연기법을 바르게 공부하여 삼세가 모두 실체가 없다는 정견을 세워야 한다. 과거니 현재니 미래니 하는 분별심을 떠나 어디에도 머물지 않는 그 마음을 쓰는 것이 바른 수행이고 깨달음의 길이다. 이렇게 삼세와 내가 본래 없다는 정견을 세우고 부지런히 정진하면 마침내 깨달음을 성취하여 삼세 윤회를 해탈하여 영원한 대자유를 누리는 것이다.

단박 깨침, 돈오돈수를 알면…

그런데, 이와 같이 불교의 중도연기법에 정견을 세우고 수행하면, 설사 깨치지는 못하더라도 마음이 편안하다.

왜냐하면 나라는 존재가 독립된 실체가 아니라 우주 만물에 의지하여 연기로 존재한다는 것을 바로 알게 되면, 나와 우주 만물이 본래 이대로 완전함에 눈을 뜬다. 내가 있고, 내가 중생이라 함은 분별심이고 착각일 뿐이다. 나라 할 것이 없는 본래 완전한 중도로 존재하는 나를 알게 되면 정견이 서서 아직 내 안에 분별망상이 있더라도 크게 근심 걱정할 것이 없다. 내가 없는데 걱정할 것이 무엇인가?

선에서 깨달음을 돈오요 돈수라 함은 이런 이유로 말하는 것이다. 내가 본래 완전하기 때문이 이대로 본래 부처다. 내가 있고, 내가 중생이라 함은 착각일 뿐이니 그 착각 망상에서 단박에 깨어나면 단박에 닦아 본래 부처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것이 선종의 깨달음 돈오돈수다. 돈오란 내가 중생이라는 착각과 미망에서 본래 완전함으로 깨어남이다.

〈불교인재원 생활참선 지도교수 / (사)한국명상지도자협회 사무총장〉

자연과 조화로운 세상을 위한 불자들의 직접행동
에너지 소비자에서 에너지 생산자로

불교환경연대 부설 비로자나 자연에너지 협동조합은 사찰이나 가정에서 햇빛이나 바람 같은 자연에너지를 이용하여, 에너지 소비자에서 에너지 생산자로 전환하는 운동을 전개합니다.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옥상이나 지붕, 주차장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여 불교계 탄소중립을 위해 앞장서 나갈 것입니다.

자연과 조화로운 세상을 위한 불자들의 직접행동, 비로자나자연에너지협동조합의 조합원이 되어 불교 RE100을 앞당기는 주역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출자금은 1구좌 5만원이며 탈퇴 시 돌려드립니다. 수익금은 신규 발전소 설치에 사용하거나 사찰에 필요한 공익활동을 지원하고 조합원들에게 배당금으로 환원합니다.

주차장에 태양광패널을 설치하면 차고를 따로 만들 필요가 없으며, 화창한 날에는 그늘과 전력을 제공하고 눈비 오는 날에는 차량을 보호해 줍니다. 지붕이나 옥상에 태양광을 설치하면 건물 누수 방지 및 냉난방 단열효과도 낼 수 있어 유용합니다. 비로자나자연에너지협동조합에 연락주시면 어렵고 복잡한 신청에서부터 설계 시공까지 책임지고 설치해드립니다.

♣ 문 의 : 010-4232-2206
♣ 홈페이지 : vrcn.idanah.net


녹색사찰 울산 백련사

조합원 가입
홈페이지

비로자나 자연에너지협동조합 natural energycooperative



윤인수 원장 연구개발

겨우살이환

재료명: 겨우살이, 느릅나무뿌리껍질, 도라지, 더덕, 모과, 천문동, 맥문동, 비파잎, 삼백초, 뽕나무뿌리껍질, 둥굴레뿌리, 무화과, 탱자, 대추, 산사나무열매, 맥아
비염이 있습니까? 숨이 차십니까?
기침,가래가 힘드십니까?
천식에 힘드십니까?

여주환

재료명: 여주, 돼지감자, 산수유열매, 복분자, 오미자, 구기자, 복령, 옥수수수염, 천문동, 맥문동, 감초뿌리줄기, 뽕나무뿌리껍질, 창출뿌리줄기, 작약, 황기, 칡뿌리, 산사나무열매, 맥아
당뇨 있으신 분
혈당수치관리를 위해 여주환을
드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전복껍데기환[석결명 스틱]

재료명: 전복껍데기, 마리골드, 국화, 민들레, 엉겅퀴, 백작약, 다시마, 톳, 산사나무열매, 맥아
간과 눈에 문제가
생기면 석결명으로 해결하세요.(본초강목)
세종대왕께서도 드셨다고 세종실록에 나와있습니다.
추사 김정희 선생도 제주도 유배시 석결명환을 드셨다고 방송되었습니다.

골담초환

재료명: 우슬, 황칠, 두충, 가시오가피, 울금, 참당귀, 쇠비름, 독활, 마가목열매, 개다래열매, 산사나무열매, 맥아
허리, 다리가 불편하십니까?
오래 걷기 힘드십니까?
계단 오르기 힘드십니까?

산수유환

재료명: 산수유열매, 옥수수수염, 복분자, 오미자, 구기자, 토사자, 사상자, 복령, 마가목열매, 뽕나무뿌리껍질, 참당귀, 천궁, 우슬, 오갈피, 두충, 질경이, 산사나무열매, 맥아
소변때문에
밤에 몇번씩 일어나십니까?

어성초환

재료명: 어성초, 적하수오, 측백나무, 자소엽, 서목태, 복분자, 삼백초, 참당귀, 마가목열매, 뽕나무뿌리껍질, 솔잎, 녹차잎, 산사나무열매, 맥아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십니까?

하지·아이케어센터 | 구입문의 : 02-969-9007 / HP.010-3245-0118
농협 : 301-0234-9633-61 / 예금주 : 윤제하